

진귀한 꽃제품들의 품종을 늘어간다

— 평양화초연구소에서 —

공화국의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여러가지 화초를 사철 생산보장할수 있는 재배체계를 세우고 화초재배의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꽃이 아름답고 피어있는 기간이 오래며 생활력이 강한 품종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이름난 꽃종자들을 국내외의 조건에 맞게 품종순화시켜 170가지의 새 품종을 국가품종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싹붙임, 유전자전이의 방법으로 이름난 꽃관상화초들의 새로운 품종들을 육성하였다.

새로 꾸러진 무난방온실 조건에 맞는 화초재배체계를

확립한 이곳 연구자들은 여러가지 진귀한 꽃들을 생산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였다.

여러가지 품종의 장미를 국내의 기후조건에 맞게 순응시키고 겨울철에도 장미를 재배할수 있는 영양액재배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새로운 생분농약을 개발하였다.

말린꽃제작소의 연구사들

이들은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적요구에 맞게 선인장의 관상효과를 높이기 위한 데 힘을 넣어 접재배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수십종에 달하는 색과 형태가 다양한 선인장품종도 키워냈다.

한편 여러가지 꽃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말린꽃제작소의 연구사들

은 화초의 자연미미를 그대로 살릴수 있게 말린꽃의 선도보존기술을 확립하고 제품들의 가지수를 보다 풍부히 하고있다.

화초연구와 재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이곳 연구사들의 노력에 의해 곳곳에 아름다운 꽃경관이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선남들이 새린다는 이선남폭포

이선남폭포는 천하절승으로 이름난 묘향산의 천태동에 있다.

이 폭포는 보통때에는 의 좋은 형제처럼 두줄기로 갈라져 떨어지므로 지난 시기에는 형제폭포로 불리워왔다.

주체 70(1981)년 5월 천태동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곳 등산길을 새로 확정해주시면서 형제폭포를 《이선남폭포》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이때부터 형제폭포를 이선남폭포로 고쳐 부르게 되였다.

이선남폭포는 해발 1 599m

되는 향로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지질시대의 지각운동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화강암절벽으로 두줄기로 갈라져 떨어진다.

폭포의 높이는 22m이며 너비는 각각 6~10m, 4~8m이다.

폭포는 경사진 바위를 따라 떨어지다가 바위에 걸려 앞으로 내뿜기도 한다.

그밑에는 폭포수에 의하여 길게 메인 길이 3m나 되는 소가 있다.

소에 찻던 물은 넓게 가로 질러간 암반우를 미끄러져내

려 다시 그밑에 형성된 두번째 소에 찻다가 계곡을 따라 유유히 흘러내린다.

장마철이 되면 두줄기의 물줄기는 합쳐져 바위벼랑 전체가 폭포수로 뒤덮이게 된다.

두줄기의 물줄기가 서로 힘을 겨루듯이 기운차게 떨어지는 이선남폭포는 생김새가 기묘하고 아름다와 이곳 일대의 자연풍치를 한껏 돋구어줄뿐 아니라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 있다.

본사기자



사화 화약무기제작과 진포해전 (2)

글 문병우, 그림 채대성

최무선은 곧 화약의 유리성을充分认识에 보고하는 동시에 화약과 화약무기를 많이 만들어 왜적을 쳐부실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무능한 일부 관리들은 여러성제도 최무선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이웃나라에서 절대비밀에 붙이고있는 그 제조방법을 어떻게 알고 만들어낸단 나라를 속이려는노릇이지.》

최무선은 화약의 폭발로써 그 위력을 시위한 후에야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키였다.

이때 화약무기의 제작과 그것을 장치할수 있는 견고한 함선제조에 적극 도와나선 사람은 최영장군이었다.

북방의 적과 왜구와의 수 십차례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온 로장 최영은 북방의 적을 막는데는 산성이 필요하며 왜적을 치는데는 전함이 제일이라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통절히 느끼고있던터였다.

최무선이 화약제조에 성공한 1373년에 그가 특도도 순찰사가 되자 곧 전함의 건

조에 착수하여 마침내 수 백척을 진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낸 해와 최영이 대항대를 건조하려던 해가 일치한것은 우연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1377년 화약과 화약무기를 다량 제조하기 위하여 화통도감을 설치하자는 최무선의 제안이 성취되어 대장군포, 이장군포 등 각종 화포와 철령전, 류화, 주화 등 여러 종류의 포탄을 만들어내는 데서도 또한 최영의 지지와 원조가 컸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일개인의 발명이나 창안도 그것이 국가적, 사회적적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 빛을 내지 못하는것이니 하물며 무기류와 같이 인력, 재력을 많이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할것이다.

최무선이 다시 전함에 대포를 설치하는데 성공하자 최영장군은 지체없이 백성들과 승도를 동원하여 1379년 한해동안에 이러한 큰 군함 130여척을 건조하여 해상경

속에 나가는 배들의 속력은 점점 빨라져 목적지인 진포도 진포에 접근하게 되자 최무선의 미간에는 류달리 심각한 표정이 어렸다.

그것은 최무선이 다년간 고심끝에 만든 화약무기를 처음 사용하게 된 왜구격멸의 시각이 각각 다가오고있기 때문이었다.

1380년 4월 최영이 해도 통사가 되어 전국의 수군을 총지휘하게 되면서 화약무기로 장비한 전함을 실천하여 시련해보려고 버르고있던 터였다.

그러던중 왜구가 수백척의 대선단을 끌고 들어와 금강하구에 배를 댄 후 전라도의 여러 주, 군을 로략질하고있다는 급보에 접하여 고려수군은 급히 출동하게 되였다.

1380년 8월 수천명의 수군을 실은 100여척의 고려함대는 해상경계를 떠나 남으로 달려갔다. 군사들은 기어 이 왜적들을 쳐부시고야말려는 의기충천한 기세로 가슴 불태우며 이마에 솟은 땀도 들일 겨를없이 더욱 부지런히 노를划하였다.

정연한 기치들이 숲을 이루고 전함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 가운데 제일 큰 무선에서 배머리화포편의 화포를 쏘다듬고있는 장수가 이변원정의 부원수 최무선이었다. 검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왜

권 광 삼 식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기상과민증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몸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현대의료기상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상과민증이라고 부른다.

기상과민증은 주로 정신이 집중되지 않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맥이 없으면서 피곤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메스꺼운것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잠이 잘

오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높아지는것 등으로도 표현된다.

의료기상학전문가들은 가을철이 기상조건이 변화가 매우 큰 계절이래는데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있다.

우선 가을철에는 여름철에 비해 기온과 습도가 떨어지고 기압은 높아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체세포의 산소섭취량에 영향을 준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불면증, 머리아픔 등의 기상과민증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기체의 생리적반응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가을철은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엇갈리면서 불고 기상요소의 변화가 심하다는것이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날씨변화에 대한 생리적응유지능력을 높여야 한다.

본사기자



왜구들은 진포구에 배를 대고 육지에 올라 곡식을 약탈하여 배에 싣고있었다.

크고작은 여러척의 배를 굶는 바대로 묶어 풍랑에서 배머리화포편의 화포를 쏘다듬고있는 장수가 이변원정의 부원수 최무선이었다. 검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왜

척의 왜적함선의 전투는 드디어 개시되었다.

놈들은 여러척씩 묶은 선단을 끌고 나와 고려함대를 포위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화약무기를 처음으로 써서 왜구를 격멸소탕한 유명한 진포해전이었다.

(끝)

첼랑자와 첼령진이 적선의 돛대와 갑판을 박살내고 화전과 주화가 불을 뿜으며 적선에 명중되자 배들에는 일시에 불이 붙어 질은 연기와 거센 불길은 온 하늘을 뒤덮었다.

튼튼한 바대로 련해된 적선들은 도저히 빠져나갈수 없어 좌왕우왕 일대 혼란에 빠져 모래가고 거기에 적들은 불에 타죽지 않으면 물에 빠져죽은자가 태반이었다.

사세가 급함을 본 왜적들은 돌연히 배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기다리던 고려함선들은 일제히 적선을 향하여 총돌격을 개시하였다.

용감한 고려수군들은 비호같이 적선에 뛰어올라 북수의 장검을 휘둘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이리하여 500여척의 적선은 크게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고려수군의 위력한 화약무기앞에 여지없이 격멸되고말았다.

고려수군은 왜적들이 붙잡아 가두었던 330여명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였으며 수많은 적의 병병기를 로획하고 개선했다.

이것이 화약무기를 처음으로 써서 왜구를 격멸소탕한 유명한 진포해전이었다.

(끝)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

봉화화학공장 지배인 로력영웅 박사 김추남

로력영웅이며 박사인 김추남 봉화화학공장 지배인은 접촉분해장치와 페가스연소공정의 접화조종체계 등 의의가 큰 여러건의 발명을 하여 중요화학제품들의 가공률과 질을 높이고 규모가 큰 접촉분해공정을 확립함으로써

해마다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

또한 주체적관점에서 전국 집결체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여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실리가 큰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서도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하여 김추남 지배인은 지난해에 제정된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중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세계비물질문화유산 조선민족씨름

씨름은 두사람이 다리에 끈 살바나 허리에 댄 락 락으로 잡고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민족체육종목의 하나이다.

씨름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선조들의 로동생활과정에 발생한 운동종목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방법이 대단히 변화발전하여 왔다.

우리 선조들은 모내기과 김매기, 가을걷이때의 일침에 발머리나 강가의 모래관 혹은 잔디밭에서 씨름판을 벌리곤 하였다.

씨름은 지방별로 풍습과 취미에 따라 그 형식에서 약간한 차이를 있었으나 나이와 수준에 맞게 상씨름, 중씨름, 애기씨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씨름경기에는 다양한 기술수법들이 있다.

흔히 적용되는 다리수법들인 호미걸이, 안걸이, 무릎걸이, 빗장걸이, 탈치기가 있으며 손수법들인 무릎치기, 발목치기, 팔걸이, 다리당기기과 뽀뽀수법들인 궁둥배지기, 들배지기, 돌림배지기, 동이배지기, 뒤집기, 집치기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세부동작수법들을 포함할수 없이 많다.

씨름경기장은 깔개씨름장과 길 20cm정도로 땅을 파고 그안에 모래를 두께가 30cm 이상 되게 깔고 다음 돌레로부터 1m밖에 1cm의 너비로 흰선을 그어 안전구역을 표시한다.

씨름경기는 조건과 시간, 장소 및 대상에 구애됨이 없이 대중화할수 있는 흥미있는 민족체육경기종목으로서 사람들의 힘과 인내력, 용감성과 투지를 키워 줄수 있게 하여준다.

지난 9월초 공화국의 품치수려한 통라도에서는 씨름에 호가들과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18차 대왕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민족로리 추어탕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미꾸라지를 리용하여 추어탕을 만들어 먹었다.

미꾸라지에는 트립토판, 메티오닌 등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질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등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비타린 B₂ 는 동물의 간보다 더 많이 들어있으며 철분은 시금치보다 더 많다.

추어탕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미꾸라지 150g, 일 때 소고기 50g, 두부 40g, 미나리 20g, 풋고추 30g, 숙갓 20g, 고추장 10g, 된장 15g, 소금 20g, 생강 5g, 기름 15g, 파 10g, 마늘 3g, 후추가루 0.2g, 맛내기 0.2g, 로리우술 10g 등을 준비한다.

생강은 얇은 편으로 썰고 파의 절반량은 길이가 3~4cm 토막으로, 나머지는 송송 썰어 놓는다.

소고기는 잘게 다지고 두부는 길이 3cm, 너비 2cm, 두께 0.5cm 되게 썰어놓는다.

끓는 연한 소금물에 절반량의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한

소금 끓여 양념물을 만든다.

여기에 깨끗이 씻어 썰어 놓은 미꾸라지를 넣어 데쳐낸다.

달군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나머지 생강편과 파토막을 두고 볶다가 향기가 나면 다진 소고기를 두고 볶는다.

여기에 미꾸라지를 넣고 같이 볶다가 술을 약간 치고 물을 미꾸라지의 3배정도 되게 부어 1시간 30분정도 푹 끓인다.

미꾸라지가 푹 무르면 된장 고추장, 두부, 숙갓, 미나리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송송 썰은 풋고추와 파, 다진 마늘, 맛내기, 후추가루를 넣어 맛을 들인 다음 탕그릇에 담는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 귀한 자식 매투키운다. 귀여운 자식일수록 잘못을 눈감아버리지 말고 요구성을 높여 엄하게 키워야 함을 이르는 말.
- ◆ 마치가 가벼우면 뭇이 솟는다. 웃어른, 웃사람이 대를 세워 써서 왜구를 격멸소탕한 유명한 진포해전이었다.

멋대로 행동함을 비겨 이르는 말.

◆ 우는 아이 젖준다. 자기에게 응당 차례지겠거니 하고 믿고있다가는 놓칠수 있으므로 어떤 일에서나 자기가 요구해야 할것은 요구해야 구할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